

상인들 업종전환·이전 서둘러

철수할 미공군기지 주변 표정

오는 10월말부터 92년 7월까지 주한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5개 미공군기지 가운데 광주·대구·수원 등 3개 미공군기지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군부대 취업 한국인 노동자, 기지촌 상가 주민들은 철수 뒤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은 시기만이 문제될 뿐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는데 이번에 기지폐쇄가 기정사실로 됨에 따라 이들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노조 차원에서 집단으로 정부에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자녀교육상의 문제 등을 들어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개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공군기지 폐쇄에 따른 이들 지역주민들의 표정을 모아본다.

광주 미군 3백50명(전투부대 신대 1백50명, 지원대 2백명)이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광주기지가 폐쇄되면 전업을 하거나 새로 직장을 찾아 나서야 할 한국인은 부대취업 노동자 3백50명과 위안부 80여명, 그리고 기지촌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등 출잡자 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기지촌에 있는 미군전용 업소 6개와 집객업소 20여개, 점포 40여개가 주로 미군을 '고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전국 주한미군 노동조합 전남 지부(지부장 유왕수) 소속 노조원 2백90명과 비노조원 60명 등 한국인 노동자 3백50명은 1일 삼삼오오 모여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고 미군 철수 뒤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해 이루어질 미군당국이나 한국정부의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생계대책 등을 상의했다.

이들은 미군갑축이 계속 거론되면서 철수에 대비, 노조를 통해 청와대 등에 전업대책 마련을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곳 용보촌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간다는 광주 출신 이이무개(26)씨는 "당장 생각하면 앞날이 암담하지만 차라리 잘됐다"며 미군 철수로 언젠가는 발을 떼야 할 위안부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새 삶을 다짐했다.

현재 미군과 계약동거중인 30여명을 포함한 이들 위안부들은 "한때 3백여명이나 되던 위안부가 80명선으로 줄고 밤늦게 술집을 찾은 미군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날로 격화하고 있는 반미감정의 결과임에 틀림없다"면서 "거의 모든 클럽 주인이나 위안부가 머지 않아 미군철수가 있을 것으

운 표정을 짓고 있다.

주민 황태준(22)씨는 "그동안 미군과 위안부들의 호트러진 생활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진 게 사실이다"라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뻐했다.

이용옥(53)씨도 "미군이 떠난다 해도 한국공군과 민항기 비행장은 그대로 남아 주민들의 숙원인 항공기 소음피해와 지역개발정책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비행장을 전부 옮기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부대 정문 앞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나이트클럽 등 술집과 양복점·양품

부대취업 노동자 고용 대책 호소 주민들 환영...지역경제 영향없어

호소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2일 주한미군 노조 서울본부(서울 용산구 한강로 부성빌딩)에서 열린 노조 전국 15개 지부장 회의에서 논의될 철수후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직업알선책을 정부 당국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기지촌 위안부 80여명도 자신들의 '직장'이었던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속칭 '용보촌'에서 동료들끼리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앞으로 다가올 '새삶'에

로 예상,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또 한때 양담배나 양주를 비롯 미제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국내유통 통로로 비난의 대상이 됐던 오명을 벗겨질 것이라며 오히려 홀가분해 하기도 했다.

대구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대구시 동구 입석동 주민들은 철군소식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이곳에서 영업을 중인 나이트클럽, 양복점 등의 상인들은 다소 어두

침·전자오락실 등 15개 상점 1백여 상인들은 일손을 놓은 채 앞일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 일대 상인들은 미군철수를 앞두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주한 미군노조 K2지부 노조원 4백50여명은 우리 정부와 미군당국이 철수에 앞서 노조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부장 서중권(43)씨는 "현재로서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노조 중앙위 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는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자리잡고 있는 수원기지는 오산기지의 보조기지로 한때 1천3백명 가량의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으나 병력이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4백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수원기지 폐쇄조치가 이곳 지역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기지 부근에는 외국인 전용 술집 6곳, 식당 5곳, 세탁소, 잡화점 등 30여개 업소가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8월개부터 주둔병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일부 업소는 이미 전업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또 몇몇 업소는 인근 오산기지 주변으로 이전을 서두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지 폐쇄에 따라 주변 세류동, 서둔동, 평동, 오목천동 등지의 주민들은 그동안 시달려 왔던 소음공해에서 벗어나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 상공회의소 신민복(53) 사무국장은 "그동안 수원기지 주둔 미군이 수원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이 별로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정문 앞에서 6년 동안 이민대행업을 해온 김행원(37·현대이주개발공사 수원지사)씨는 "주둔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수원기지를 오산기지로 흡수하게 돼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의 여행 알선으로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록 기자〉